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3월 2일 · 제346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AGRO사, 콜드체인 수출입 선도 위해 휴스턴항 내 온도조절 시설 착공
2. 케냐 몸바사항, 탄자니아 다레살람항, 2015년에 컨테이너 하역비 '상승'
3. DP월드, 제벨 알리항 터미널 4 건설 계약 체결
4.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세 둔화

| 물류시장동향 |

1. 이란의 세계공급사슬에서 역할 증대 예상
2. Kuehne Nagel, Corning Life Sciences와 아태 지역 물류 협력 강화

| 공지사항 |

1. 한·중 FTA를 활용한 수산식품 콜드체인기업 중국 진출 방안 세미나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AGRO사, 콜드체인 수출입 선도 위해 휴스턴항 내 온도조절 시설 착공

- AGRO Merchants Group사¹⁾는 휴스턴항 Bayport 컨테이너 터미널에 30만 평방미터의 온도조절 시설(temperature-controlled facility) 첫 단계 공사를 시작했음
- 이번에 착공된 온도조절 시설은 12 에이커(4만9천m²)의 부지 위에 건설되며 2017년 여름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
- 새로운 건물에는 냉장 · 냉동 육류, 해산물, 과일, 채소의 저장, 부가가치 서비스, 수출입 업무를 위한 온도조절 창고 공간이 제공됨
 - 주요 시설로는 미국 농무부의 검사와 처리용 설비, 24시간 송풍 동결 셀, 입고와 출고를 위한 85 피트(26m) 길이의 트럭 도크가 있음
 - 철도 램프를 통해서도 전체 북미 시장에 대한 인터모달 서비스도 제공됨
- 또한 휴스턴의 중심적인 위치로 인해 이 온도조절 시설은 냉장 · 냉동 제품의 수송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 - 뉴욕, 필라델피아, 찰스턴, 사바나와 오كل랜드 근처의 AGRO사의 기존 미국 내 시설과 휴스턴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AGRO사는 수출입 콜드체인 공급자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임
 - Bayport 컨테이너터미널은 중남미, 남아메리카의 서부 해안 항로, 아시아, 유럽과 지중해, 중동, 인도와 아프리카를 포함해 전 세계 항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스크선사, MSC, CMA CGM 선사의 홈 터미널임
- 2015년 7월 보고서에서 휴스턴항 관리이사인 Roger Guenther씨는 "AGRO사는 최근 주요 사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미래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다"고 언급함
 - AGRO사는 휴스턴항과 미국 시장에서 점증하는 고객의 수요에 부응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음
- AGRO Merchants사의 북미지역 사장인 Don Schoenl씨는 "고객에게 미국, 특히 걸프 지역에 수출입 되는 제품들을 운송하는데 있어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되어 있다"고 밝힘

1) AGRO Merchants Group사는 북미, 남미, 유럽 8개국에 70만 평방미터의 냉장·냉동 창고 공간을 가진 53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



- Bayport 컨테이너터미널의 근접성을 활용해 과적 화물에 대한 법적 수송 규제를 피할 수 있고, 중요한 철도와 인터모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함
- Guenther씨는 이번 투자가 미국의 차세대 수송 허브를 목표로 하는 휴스턴항 미래 비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
- 또한 Guenther씨는 AGRO Merchants Group사의 추가적인 냉장·냉동 시설 건설로 휴스턴 지역 및 전세계 고객들이 휴스턴항을 통해 글로벌 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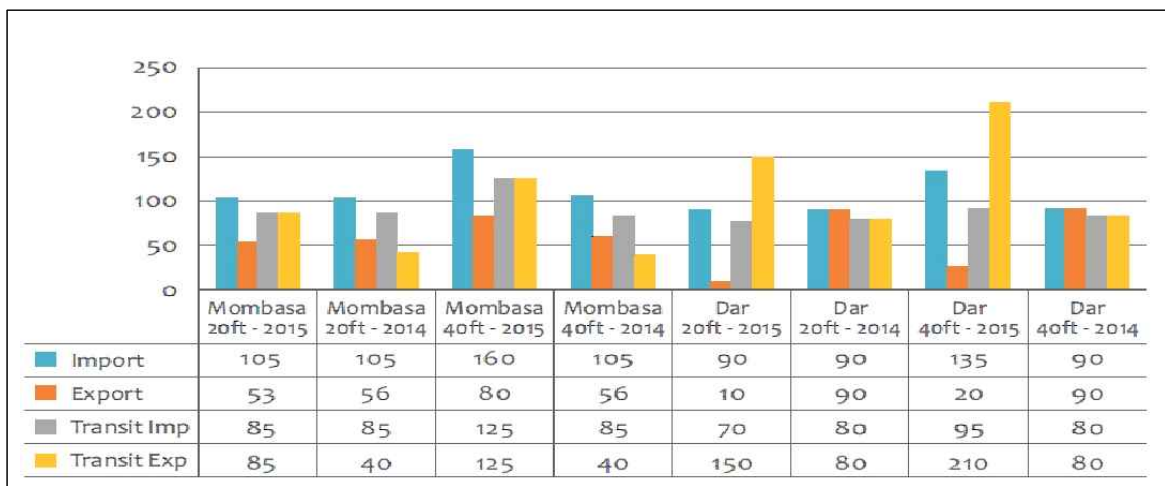
자료 : www.agromerchants.com, 2016.2.16. /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2016.2.17.

이연경 전문연구원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

케냐 몸바사항, 탄자니아 다레살람항, 2015년에 컨테이너 하역비'상승'

- 전반적인 해운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케냐 몸바사항과 탄자니아 다레살람항 등 동아프리카 양대 항만의 컨테이너 하역비는 지난 1년 사이 TEU당 적게는 55 달러에서 많게는 130 달러까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남
 - 몸바사항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하역비는 TEU당(40피트 기준) 2014년의 105 달러에서 2015년에 160 달러로 55달러가 올랐음
 - * 몸바사 항은 2014년 중국 정부가 케냐 나이로비와 캄팔라까지 표준궤 철도 연결공사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, 2013년 이전까지 매우 높은 물동량 증가를 기록했음
 - 다레살람항 통과 컨테이너의 경우 TEU당(40피트 기준) 2014년의 80 달러에서 2015년에는 210 달러로 2.6배 이상 치솟았음
 - 이와 같은 사실은 동아프리카화주협의회(Shippers Council of Eastern Africa, SCEA)의 연례 물류 성과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됐음
- 다레살람항의 경우 수출 컨테이너 하역비는 대폭 낮아져 몸바사항과 대조됨
 - 탄자니아 다레살람항은 수출 컨테이너에 대해 2014년 TEU당 90 달러(40피트 기준)를 부과했으나 2015년에 20 달러로 큰 폭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남
 - 이와 달리 몸바사항은 수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2014년 TEU당(40피트 기준) 56달러에서 2015년에 80달러로 인상했음



자료 : SCEA, The 2015 East Africa Logistics Performance Survey.

- 항만 효율성의 주요 지표인 체항 시간(port dwell time) 면에서 몸바사항은 평균 5일로 다레살람항(9일)에 비해 양호하나 두 항만 모두 체항 시간은 국제 표준(3일)을 초과함
 - 체항 시간은 화물이 항만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총합으로 선박의 입항 대기 시간, 부두 하역에 걸리는 시간, 컨테이너화물조작장(CFS) 이송시간, 통관 및 반출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합친 것임



- 몸바사항의 체항 시간은 2014년 7월에 76.3시간이었으나 2015년 6월에 119.7 시간을 기록해 약 36.3 %가 증가, 오히려 지체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
 - * SCEA의 조사 결과, 이처럼 체항 시간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화물 하역 및 통관 등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절차(31%)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
- 동아프리카화주협의회(SCEA)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항만 터미널과 내륙항(호항) 및 배송 서비스의 창출을 통한 배후지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뜻하는 '기능적 지역주의', 적절한 인프라 투자 등 7개 항의 물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함

자료 : www.worldcaronews.com/htm/w20160222.029429.htm, 2016.2.22.

박성준 전문연구원
051-797-4774, sjpark@kmi.re.kr



DP월드, 제벨 알리항 터미널 4 건설 계약 체결

- 아랍에미리트(UAE)의 글로벌 터미널운영사인 DP월드는 16억 달러를 투입해 제벨 알리(Jebel Ali)항 터미널 4를 건설할 계획임
- 이를 위해 최근 Dutco Balfour Beatty 및 BAM International Abu – Dhabi와 계약을 체결함
 - Dutco Balfour Beatty는 주요 작업 야드(operation yard) 및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수용이 가능한 1,200미터 길이의 부두를 건설할 예정임
 - 반면, BAM은 400미터의 다리 및 2,200미터에 달하는 18미터 깊이의 안벽(Quay wall)을 건설할 예정임
 - 제벨 알리항 터미널 4는 현재 위치한 터미널 2의 북쪽 매립지에 건설될 예정임
- DP월드는 최근 체결한 두 건의 계약 금액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, 이번 터미널 확충공사는 미래의 항만 운영방식을 바꿀만한 큰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힘
- 또한, 이번 개발을 통해 2020년 '두바이엑스포' 개최에 따른 물량 증가와 초대형 선박 기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힘
- 이번 확충공사의 1단계는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며, 완공 시 터미널 4는 310만 TEU의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- 이로 인해, 2018년 제벨 알리항의 총 처리능력은 2,21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
 - 더불어, 같은 해까지 총 11,000미터 길이의 부두와 최소 110개의 크레인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
- 확충공사 2단계의 건설시일은 아직 미정이나 Dutco Balfour Beatty가 추가적으로 작업 야드 및 1,000미터에 달하는 부두를 건설할 예정임
- 확충공사가 모두 완공되면, 터미널 4는 총 790만 TEU의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자료 : <http://www.thenational.ae>, 2016.2.24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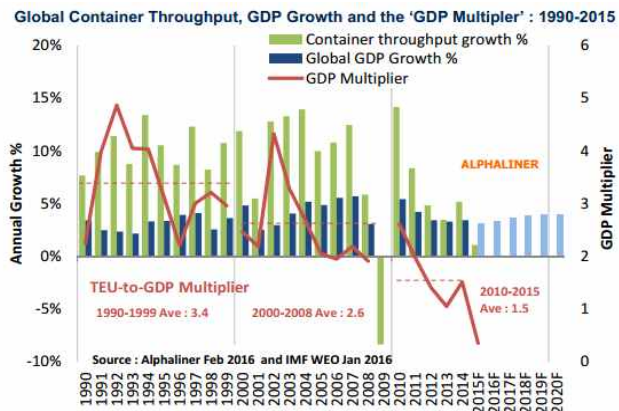
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세 둔화

- Alphaliner에 따르면, 2015년도 전 세계 400개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8.4% 감소한 이래 2015년의 세계 물동량 증가율은 두 번째로 낮은 것임
 - IMF에 따르면, 글로벌 GDP는 2015년 3.1% 증가했지만, 세계 물동량은 이의 절반임
 - GDP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2.6배 성장함

주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율 /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과 GDP 증가율

Top 6 Container ports : January 2016 vs 2015 performance

In TEU Millions	Jan 2016	Jan 2015	YTD %
Shanghai	2.943	3.163	-7.0%
Singapore	2.488	2.782	-10.5%
Shenzhen	2.159	2.176	-0.8%
Ningbo	2.025	1.910	6.0%
Hong Kong	1.646	1.821	-9.6%
Busan	1.593	1.620	-1.6%



자료 : Alphaliner, 2016.02

- 증가세가 둔화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
 - 벌크화물이 컨테이너 화물로 활발히 전환(컨테이너화) 했던 예전에 비해 전환 화물의 증가가 더 더짐
 - 운송 화물 즉, 운송제품의 형태가 소형화 및 간소화됨
 - 중국으로의 제조 아웃소싱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, 중국 경제가 내수화되어짐에 따라 중국 외 해외 무역 증가세가 둔화됨
 - 왕복항만 적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의 비율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
 - 직기항이 증가하고 환적화물이 감소했음
- 그러나, 물동량이 증가한 동남아시아, 라틴 아메리카, 아프리카, 발틱해 피더항만들의 항만 시설 개선 요구는 증가하고 있음
- 해운업계의 과잉 공급문제를 소화하는데 있어 세계 물동량과 GDP 증가율의 관계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



- 향후 2년간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컨테이너선박량 증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완화 될 것으로 예상함
- 2016년 세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1.6%로 추정됨

자료 : Alphaliner, 2016.2.24.

김주혜 연구원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이란의 세계공급사슬에서 역할 증대 예상

- 이란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물류 공급업체들이 증가하고 환승허브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종교 성지 마슈하드를 잇는 926km의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시작한 중국은 이란이 향후 세계공급사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고 함
 - 철도가 완공되면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가 단축됨으로서 화물 운송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- 또한 올해 초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도 이란이 세계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 - 2012년 경제제재조치로 인해 상당한 무역량 감소를 경험한 이란은 중국과의 철도 공사를 통해 동서를 잇는 환승허브로서 경제 재건을 도모하려고함

자료 : <http://www.bmiresearch.com>, 2015.2.26.

김민경 연구원
051-797-4777, mkkim421@kmi.re.kr

Kuehne Nagel, Corning Life Sciences와 아태지역 물류 협력 강화

- 독일 물류운송업체인 Kuehne Nagel은 미국의 Corning Life Sciences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한 물류부문협력 협약을 체결함
 - 이번 협약을 통해, Kuehne Nagel은 중국 상하이 양산자유무역항에 새롭게 들어서는 Corning 물류센터를 관리하게 됨
 - 또한 화물혼재(consolidation), 보관, 입출고, 배송 등의 서비스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기대함
- Corning Life Sciences 아시아 지사장은 신규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Kuehne Nagel과의 업무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함
 - 또한 그는 협력 강화를 통해 상하이 지역에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임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6.2.22

황윤희 연구원
051-797-4786, hwangyh@kmi.re.kr



한·중 FTA를 활용한 수산식품 콜드체인기업 중국 진출 방안 세미나

안녕하십니까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입니다.

한·중 FTA를 활용한 수산식품 콜드체인기업 중국 진출 방안 세미나가 개최됩니다.

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6년 3월 14일(월), 13:00~18:10
- 장소 :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, 컨퍼런스홀 5층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
- 후원 : 부산항만공사
- 참가신청 : 선착순 접수
 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 usea1004@kmi.re.kr / kfca2014@kfcca.kr
- 참가문의 : KMI 국제물류연구실 김은미 연구원, Tel. 051-797-4778
(사)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박은혜 연구원, Tel. 070-8824-3056

※ 본 세미나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